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왕국의 발전으로서 번식시킴**

(목요일 — 저녁 집회)

메시지 3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됨**

성경: 행 1:8, 2:32-36, 3:14-15, 4:33, 5:30-32, 7:56, 20:28, 26:16, 16:31

I. 사도행전에서 사도들과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증인들이었다 — 행 1:8, 4:33.

- A. 사도행전의 계시에 따르면, 주님께서 일으키시고 보내신 모든 사람은 주님의 증인이다 — 행 1:8, 26:16.
- B. 신약에서 ‘증인’의 의미는 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 있는 증거를 지니는 것이다 — 행 1:22, 2:32, 5:32, 10:39-40, 17:3, 18, 23:11, 24:14-15.
- C. 증언하기 위해서는 주님이나 영적인 것들을 보고 누린 체험들이 요구된다. 그것은 단지 가르치는 것과는 다르다 — 행 2:42.
- D. 주님은 바울을 사역자와 증인으로 세우셨다 — 행 26:16.
 - 1. 사역자는 사역을 위한 것이고, 증인은 증거를 위한 것이다.
 - 2. 사역은 주로 일, 즉 사역자가 하는 일과 관계되며, 증언은 인격, 곧 증인의 존재와 관계된다.
 - 3. 바울은 자신이 주님을 본 일들과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실 일들의 증인이었다 — 행 26:16.
- E. 승천 안에 계신 주님은 하늘들에서 증인들을 통해 그분의 사역을 수행하신다. 증인들은 주님의 부활 생명 안에서, 그분의 승천의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서 주님을 증언한다 — 행 1:8, 2:32-36, 40, 4:33.

II. 사도행전에 계시되신 그리스도는 부활 안에 계신다 — 행 1:3, 2:32, 3:15, 4:33.

- A. 죽음을 통해 그리스도는 또 다른 영역, 곧 부활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셨다.
 - 1. 그리스도는 파괴할 수 없는 생명을 지니신 살아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죽음은 그분을 붙잡을 수 없다 — 히 7:16, 행 2:24.
 - 2. 주님은 자신을 죽음에 넘기셨지만, 죽음은 그분을 붙잡아 둘 수 없었다. 오히려 죽음은 주님께 패배당했고 주님은 죽음에서 일어나셨다.
- B.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영역과 요소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 — 빌 3:10-11.
- C.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도들의 증거의 초점이었다 — 행 1:22, 2:32, 3:13, 15, 26, 4:33, 10:39-40, 13:33, 17:3, 18.
 - 1. 하나님은 부활을 통해, 승천 안에서 그분의 증인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다 — 눅 24:26, 행 3:13, 15, 26, 4:10, 33, 5:30-31.
 - 2. 주 예수님의 부활은 그 이전에 있었던 그분의 육체 되심, 인성, 인간 생활, 하나님께서 정하신 죽음을 가리키며, 그 이후에 있을 그분의 승천, 하늘에서의 사역과 행정, 다시 오심을 가리킨다 — 행 2:23, 1:9-11.

III. 사도행전에 계시되신 그리스도는 승천 안에 계신다 — 행 1:9-11, 2:32, 5:31.

- A. 부활은 생명의 문제인 데 반해 그리스도의 승천은 위치의 문제이며, 위치는 권위의 문제이다.
- B. 주님의 승천은 주님께서 하늘들에서의 생활과 사역을 개시(開始)하신 것이었다. 이러한 개시는 그분을 새로운 영역 안으로, 곧 지금 그분께서 생활하시고 사역하시는 곳인 하늘들 안으로 이끌었다.
- C. 주님의 승천은 그분을 새로운 단계 안으로, 곧 부활한 사람이 하늘들에서 하나님의 행정의 중심으로서 생활하는 단계 안으로 이끌었다 — 계 5:6.
 - 1. 부활하신 이분은 지금 하늘들에 앉아 계시면서 하나님의 행정을 집행하고 계신다 — 히 12:2.
 - 2.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하늘들로 승천하셔서, 하나님에 의해 높여지시고 만물에 대한 왕권과 지배 권위와 머리의 권위를 받으셨다 — 빌 2:9-11, 엡 1:22.
 - 3.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또한 보좌와 영광과 우주 안의 모든 권위를 얻으셨다 — 계 5:6, 히 1:3, 2:9, 마 28:18.
- D.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만물의 주님으로서 만물을 소유하신다 — 행 2:36.
 - 1. 그리스도의 지배 권위는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승천 안에서 얻으신 것의 가장 중요한 방면들 중 하나이다 — 행 10:36.
 - 2. 그리스도의 지배 권위는 그분의 승천 안에서 완전히 세워졌기 때문에, 그분의 몸의 지체들인 우리는 하늘에 속한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 엡 1:20-21.
- E.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기쁨 부음을 받은 분으로서, 복음 확산과 교회 건축을 이루어 내는 하나님의 위임을 수행하신다 — 행 1:8.

IV. 사도행전에 계시되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이시다 — 행 3:14-15, 25-26, 5:30-32, 7:56, 10:36, 39-43, 16:31, 17:30-31, 20:28.

- A. 그리스도는 생명의 창시자이시다 — 행 3:14-15.
 - 1. ‘창시자’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가리키듯이, 그리스도는 생명의 기원 혹은 기원자이시다. 그분은 생명의 창시자, 생명의 최고 지도자이시다 — 행 3:15.
 - 2. 사도행전 3장에서 우리는 생명이 다른 사람들 안으로 분배되는 것을 본다. 이러한 분배는 그리스도를 번식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번식을 위해 우리에게 생명의 창시자이시자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이 필요하다.
 - 3. 생명의 창시자이신 그리스도는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다 — 행 3:14.
- B.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종이시다 — 행 3:25-26.
 - 1. 하나님은 그분의 종인 예수님을 부활과 승천을 통해 영광스럽게 하셨다 — 행 3:13.
 - 2.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씨와 하나님의 종이시며, 이 그리스도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 곧 모든 종족과 인종과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 행 3:25-26.
 - 3. 하나님은 오순절날에 그 영을 쏟아부어 주심으로써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복으로서 돌려보내 주셨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신 그 영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하늘들에까지 높이신 그리스도이셨다 — 행 2:33, 3:13-15, 25-26.
- C. 그리스도는 영도자와 구주이시다 — 행 5:30-32.
 - 1. 하나님은 사람 예수님을 세상을 다스리도록 가장 높은 영도자, 곧 군왕, 왕들의 통치자로 높이셨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을 구원하도록 구주로 높이셨다 — 계 1:5, 19:16, 행 5:31.

2. ‘영도자’는 그분의 권위에 관계되고, ‘구주’는 그분의 구원에 관계된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 그분의 구원을 받아들이기에 적합한 환경이 이루어지도록, 권위를 가지시고 주권적으로 땅을 다스리신다 — 비교 행 17:26-27.
- D. 그리스도는 사람의 아들이시다 — 행 7:56.
1. 사도행전 7장 56절은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아들이로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시면서, 그분을 위해 순교하는 사람에게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되시는 것을 계시한다.
 2. 스테반은 사람의 아들이신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보았다. 이것은 하늘들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인성을 갖고 계심을 가리킨다. 그분은 여전히 인간 본성을 소유하신다.
- E.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 — 행 20:28.
1. 우리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 오신 분이로서, 그분 자신의 피로 교회를 얻으셨다 — 행 20:28.
 2. 하나님은 ‘자신의 피’(행 20:28), 곧 ‘그분의 아들 예수님의 피’로 교회를 획득하시고 사시고 구속하셨다 — 요일 1:7.
 3. 그리스도는 하나님-사람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우리의 구속을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분의 피는 단지 사람 예수님의 피만이 아니라 하나님-사람의 피였다.
 4. 하나님은 피를 통해 교회를 얻으셨는데, 이 피는 하나님 자신의 피이다.
- F.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주님이시다 — 행 10:36.
1. 사도행전 10장 36절에서 ‘모든 사람’은 모든 백성을 가리킨다 — 딤후전 2:4.
 2.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다양한 종족과 백성의 주님이시다. 그분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 — 계 5:9.
- G. 그리스도는 심판자이다 — 행 10:39-43.
1.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의해 살아 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로 정해지셨다 — 행 10:42.
 2. 그리스도는 의로 세상을 심판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이시며,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분을 살리심으로 그것에 대한 증거를 주셨다 — 행 17:30-31.
- H. 그리스도는 믿는 이들의 믿음의 대상이신 주 예수님이시다 — 행 16:31.
1. 복음을 믿는 것은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 행 16:31.
 2. 주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이 성취하신 모든 것 위에서 있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이 성취하신 모든 것,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믿음을 구성한다 — 딤후전 1:4.

사역의 밑줄에서 발췌

승천 안에 계신 분이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을 사십 일간 훈련시키신 후 평안을 갖고 제자들을 떠나실 수 있었다. 따라서 주님은 제자들을 올리브산으로 데려가셔서 그곳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다(행 1:11-12). 그분의 승천은 그분을 새로운 영역 안으로, 곧 부활한 사람이 하늘들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기로 결정하신 것들을 집행하는 단계 안으로 이끌었다. 부활하신 이분은 이제 하늘들에 앉아 계시면서 하나님의 행정을 집행하고 계신다(행 2:36, 히 12:2).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생명 주시는 영을 속사람과 관련된 생명과 생명 공급과 모든 것으로서 제자들 안으로 불어 넣으신 후에, 제자들은 모두 하나님-사람들, 곧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들이 되었다. 그들은 본질적으로 신성한 생명으로 충만했지만, 아직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할 자격을 갖추지는 못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하늘들로 승천하셔서, 하나님에 의해 높여지시고 만물에 대한 왕권과 지배 권위와 머리의 권위를 받으셨다. 그분은 또한 보좌와 영광과 우주 안의 모든 권위를 얻으셨다. 백이십 명이 이 땅에서 열흘 동안 기도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높여지신 그리스도를 만물의 왕과 주님과 머리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은 그분께서 높이신 분, 곧 승천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권위와 보좌와 영광을 주고 계셨다.

성령을 부어 주심

승천 안에 계신 분이신 그리스도는 성령(행 2:33)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 주심으로(17상절), 모든 믿는 이들을 한 몸 안으로 침례 주셨다(1:5, 고전 12:13).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편으로 높아지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으셔서, 여러분이 지금 보고 듣는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높아지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약속을 받으신 것은 사실상 성령 자신을 받으신 것이었다. 그리스도는 인성 안에서의 그분의 존재를 위해 본질적으로 그 영으로 잉태되었고, 사람들 가운데서의 그분의 사역을 위해 경륜적으로 그 영으로 기름 부음받으셨다. 부활과 승천 후에 그분은 여전히 또다시 경륜적으로 그 영을 받으셔야 했다. 이것은 그분께서 이 영을 그분의 몸에 부어 주심으로써, 그분의 몸이 이 땅에서 그분의 하늘에서의 사역을 수행하고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성취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생명으로서 믿는 이들 안으로 본질적으로 불어 넣어지신 동일한 영이 그리스도의 승천 안에서 그리스도에 의해 믿는 이들 위에 경륜적으로 부어 지셨다. 승천 안에서 그리고 승천 이후에 그리스도는 경륜적으로 아버지에게서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을 받으셨고, 믿는 이들의 사역과 일을 위해 그들 위에 이 영을 부어 주셨다.

그리스도는 성별이나 나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육체 위에, 곧 타락한 모든 사람들 위에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그분의 모든 믿는 이들을 한 몸 안으로 침례 주셨다(행 2:17상, 1:5). 바로 그 영을 통해 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그분의 모든 믿는 이들을 그분의 몸 안으로 침례 주셨다(마 3:11, 행 1:5, 11:15-16, 고전 12:13). 신약은 그리스도께서 성령 안에서 침례 주신 분이심을 계시한다(마 3:11, 막 1:8, 눅 3:16, 요 1:33). 성령 안의 침례에 관해서 주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왜냐하면 요한은 물속에 침례 주었지만, 여러분은 며칠이 안 되어 성령 안에 침례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두 단계로, 혹은 두 번의 일로 성취되었다. 첫째로, 오순절날 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승천 안에서 다시 한번 경륜적으로 그 영을 받으신 후에, 유대인 믿는 이들을 그 영 안으로 침례 주셨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몸을 그 영 안으로 침례 주신 첫 단계 혹은 첫 번째 일이었다. 그런 다음에 고넬료의 집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모든 이방인 믿는 이들을 그 영 안으로 침례 주셨다(행 10:44-47, 11:15-17). 그것이 두 번째 단계 혹은 두 번째 일이었다. 이 두 단계, 이 두 번의 일로 말미암아 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한 번 만에 영원히 그분의 몸 전체를 그 영 안으로 침례 주셨다.

그리스도는 그 영에 의해 그분의 모든 믿는 이들을 그분의 몸 안으로 침례 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모두 한 영 안에서 한 몸 안으로 침례 받았고”라고 말했다. 그 영은 우리의 영적 침례의 범위와 요소이시고, 이러한 영 안에서 우리는 모두 유기적인 한 실체인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인종이나 국적이나 사회 신분에 관계없이 한 몸이다. 그리스도는 이 몸의 생명과 조성 성분이시고, 그 영은 그리스도의 실재이시다. 이 한 영 안에서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에 의해 이 살아 있는 한 몸 안으로 침례 받아 그리스도를 표현하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성령 안의 침례는 한 번 만에 영원히 성취되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성령

안의 침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취된 침례를 단순히 체험하는 것이다.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의 일이 이미 성취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힐 필요가 없는 것과 똑같이 우리는 성령 안의 침례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 머리아신 그리스도는 이미 몸 전체를 성령 안에서 침례 주셨다. 우리는 머리아신 그리스도께서 몸에게 이미 이루신 것을 단지 체험하기만 하면 된다.

우리가 성령 안의 침례를 체험하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우리는 주님께서 승천하심으로 그분의 지배 권위와 머리의 권위가 세워졌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행 2:36). 그리스도는 주님과 머리로 세워지셨기 때문에 성령을 그분의 몸 위에 부어 주셨다(33절). 둘째로, 우리는 반드시 몸과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머리아신 주님께, 우리가 그분의 몸을 알고 있고 그분의 몸의 거듭난 지체들로서 몸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그리고 이것에 근거해서 우리는 그분의 몸에 이미 성취된 성령 안의 침례를 우리의 것으로 요구할 수 있다. 그러면 참으로 우리는 놀라운 성령 안의 침례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승천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몸과 올바른 위치에서 있지 않다면, 아무리 많이 기도하고 기다려도 성령 안의 침례를 체험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의 부여짐을 체험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오늘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고 만물의 주님과 머리로서 교회에게 주어지셨음을 반드시 깨달아야 하며, 몸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올바른 위치에서 있어야 한다.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심

승천 안에 계신 그분은 주님—모든 것을 소유하시는 모든 것의 주님(행 10:36)—과 그리스도—하나님의 위임을 수행하도록 하나님께 기름 부음받으신 분(히 1:9)—가 되셨다. 사실상, 성령이 부여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을 높이셨고 그분을 주님과 그리스도 모두가 되게 하셨다는 증거이다.

주님, 곧 만물을 소유하시는 만물의 주님

사도행전 2장 36절은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 두십시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라고 말한다. 하나님인 주님은 언제나 주님이셨다(눅 1:43, 요 11:21, 20:28). 그러나 사람이신 주님은 부활 안에서 그분의 인성을 하나님 안으로 이끄신 후 승천 안에서 주님이 되셨다. 하나님은 언제나 주님이셨지만, 이제는 한 사람이 주님으로서 보좌에 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되신 후에 하나님은 그분을 부활하게 하시어 그분의 오른쪽에 앉히심으로 나사렛 사람인 이 예수님을 온 우주의 주님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주님이신 면에서는 어떠한 취임식도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멸시받는 지역의 비천한 동네 출신의 작은 사람이 주님이 되기 위해서는 참된 취임식이 필요하다. 이제 나사렛 출신의 이 사람이 만물의 주님으로 취임하셨다. 승천에 의해서 베드로는 자신이 삼 년 반 동안 따랐던 사람이신 예수님이 만물의 주님으로 취임하신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제 우주의 주님, 하늘들과 땅의 주님은 예수라는 이름의 실제 사람이시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선포하며, “오, 주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승천 안에서 그리스도는 만물, 곧 모든 사람뿐 아니라, 모든 것의 주님으로 취임하셨다(행 10:36). 주님으로서 그리스도는 이제 온 우주와 하나님의 선민과 긍정적인 모든 사물과 일과 사람들의 소유자이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선민의 주님이실 뿐 아니라, 천사들 그리고 천년왕국과 새 하늘과 새 땅에 있을 모든 사람의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그분은 자신이 구속하신 하늘들과 땅과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의 주님이시다. 승천 안에서 그분은 만물의 주님으로서 만물을 소유하신다.

그리스도의 지배 권위는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승천 안에서 얻으신 것의 가장 중요한 방면들 중 하나이다. 그리스도의 지배 권위는 그분의 승천 안에서 완전히 세워졌기 때문에, 머리아신 그리스도와 동일시된 그분의 몸의 지체들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만 하늘에 속한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엡

1:20-23). 그리스도께서 지배 권위를 얻으셨다는 것을 일단 깨닫는다면, 그분의 몸인 교회로서 우리는 그것을 적용해야 한다. 우리는 가련한 상태에 있는 믿는 이들과 죄인들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그분의 지배 권위를 행사할 수 있다(마 18:18-19, 28:18-19).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그분의 승천의 위치를 취하여 그분의 지배 권위를 선포해야 하며, 그분의 지배 권위가 그들에게 반드시 행사되어야 한다고 그분께 말씀드려야 한다. 우리는 이런 종류의 담대하고 비범한 기도 안에서 주님께서 승천 안에서 얻으신 것, 곧 그분의 지배 권위를 주장한다. 우리는 주님께 우리를 위해 무언가를 해 주시기를 구걸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분의 승천 안에서 얻으신 것을 주장하는 그러한 기도를 배워야 한다.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위임을 수행하도록 하나님께 기름 부음받으신 분

승천 안에서 그리스도는 만물의 주님이 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되셨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복음 확산과 교회 건축의 일을 수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따라 하나님의 영원한 만족을 위해 하나님의 선민이 구원받고 온전하게 되어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와 나타남인 새 예루살렘을 이루게 하신다. 하나님께 보냄을 받고 기름 부음받은 분이신 그분은 영원 안에서 그리고 태어나셨을 때부터 그리스도이셨다(단 9:26, 요 1:41, 눅 2:11, 마 1:16). 그분은 태어나실 때부터 그리스도라 불리셨고, 침례 받으셨을 때 기름 부음을 받으셨으며(마 3:13-17), 베드로는 그분을 가리켜 “주님은 그리스도 이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마 16:16)라고 고백했다. 이것은 그분께서 땅에서의 사역에 의해 하나님의 구속을 성취하고 신성한 생명을 해방하도록, 하나님의 경륜의 첫 번째 부분을 성취하시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승천 안에서 그분은 그분의 하늘에서의 사역에 의해 교회를 산출하고 건축하기 위해 하나님의 경륜의 두 번째 부분을 수행하도록,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 곧 하나님께 기름 부음받은 분의 위치로 취임하셨다.

비록 그리스도는 영원 안에서 그분의 신성 안에서 기름 부음받으셨고 침례 받으심으로 기름 부음받으셨지만, 승천 이전까지는 공식적으로 그리스도로서 취임하신 것이 아니었다. 예수님께서 높은 곳으로 승천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분의 임명을 공식적인 것이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선택받고 임명받고 기름 부음받으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그분의 직무에 취임하셨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그분의 성전인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그분의 영원한 계획을 성취하도록 그분을 임명하셨다는 것을 온 우주에 선포하셨다. 그러므로 승천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주님과 그리스도 둘 다 되셨고(행 2:36), 그 결과 만물을 소유하시고, 그분의 하늘에 속한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위임을 수행하신다(10:36, 히 1:9).(*신약의 결론, 영문판, 2975-2980쪽*)

생명의 창시자이신 그리스도

주 예수님은 생명의 창시자이시다. 이러한 분으로서 주님은 생명의 기원 혹은 기원자이시며,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다. 그분은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 죽음을 당하셨지만, 하나님에 의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제자들은 이분을 증언하였다.

생명의 기원 혹은 기원자

사도행전 3장 14절과 15절에서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을 거절하고 살인자를 놓아 달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창시자를 죽였으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들입니다.” ‘창시자’로 번역한 헬라어는 ‘아

르케고스(archegos)'인데, '창시자', '기원', '기원자', '최고 지도자', '대장'을 의미한다. 사도행전 3장 15절에서 이 단어는 '살인자'와 대조를 이루어 생명의 기원 혹은 기원자이신 그리스도, 곧 생명의 시작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15절에 따르면,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근원과 기원과 창시자이심을 말하고 있었다. 그분은 생명의 창시자, 생명의 최고 지도자이시다. 사도행전 3장에서 우리는 생명이 다른 사람들 안으로 분배되는 것을 본다. 이러한 분배는 그리스도를 번식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번식을 위해 우리에게 생명의 창시자이시자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이 필요하다.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

생명의 창시자이신 그리스도는 또한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다. 사도행전 3장 14절에 따르면,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이 절에서 '거룩하고'라는 말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멸시받은 나사렛 사람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시고 하나님께 분별되었다는 것을 가리킨다. 더 나아가 그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하나이셨다. '거룩하고'에 대한 성경의 의미에 따르면, 이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계시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계시며,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하나이신 분을 가리킨다. 인류 역사상 오직 주 예수님만이 그러한 분이시다. 주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분별되시고, 하나님을 위하시며, 하나님과 하나이셨다. 그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지 않으신 적이나 하나님과 하나가 아니신 적이 한순간도 없었다. 그러므로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불리신다. 그분 홀로 '거룩하신 분'이라는 칭호를 받을 자격이 있으시다.

사도행전 3장 14절에서 베드로는 주 예수님을 거룩하신 분이라고 불렀을 뿐 아니라 의로우신 분이시라고 불렀다.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께 올바를 뿐 아니라 모든 사람과 모든 것에 올바른 것이다. 오직 주 예수님만이 의로우신 분이라고 불리실 수 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하나님과 모든 사람과 모든 것에 대해 올바르시기 때문이다. 우리 자신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올바르지 않고, 심지어 사물들에게도 올바르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다.

의로우신 분이로서 주 예수님은 올바른 분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이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에 대해서도 결코 잘못하신 적이 없다. 주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때를 생각해 보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그리고 앉아서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그들 모두를 양과 소와 함께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탁자를 뒤엎으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들을 여기서 가져가 십시오. 나의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드지 마십시오.'라고 말씀하시니"(요 2:14-16). 이렇게 하신 주 예수님은 확실히 옳으셨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주님은 정치가처럼 행동하신 것이었다. 주님은 죄악된 상황을 보셨고 분개하셨다. 의로우신 분이신 주님은 의로운 방식으로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다. 그분은 결코 틀리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그분은 항상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의로우신 분이로서 그분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올바르시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 올바르시다.

유대 지도자들에게 죽음을 당하시고, 하나님에 의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제자들에 의해 증언하셨음

베드로는 유대 지도자들이 죽인 분이 생명의 창시자이심을 사람들이 깨닫기 원했다. 비록 그분은 죽음을 당하셨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다. 사람이신 주님께 관해서 신약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말한다(롬 8:11). 그러나 그분을 하나님으로 간주할 때는 그분 자신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한다(롬 14:9). 더 나아가 사도들 혹은 제자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들이었으며, 그분의 부활을 증언하였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수행하는 것에서 중대한 초점이었다.

하나님의 종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종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의해 일으켜지셔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축복을 먼저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들에게 보내어 악한 행실에서 돌아서게 하셨다.

하나님에 의해 일으켜지셔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축복을 가져오셨음

사도행전 3장 25절과 26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은 신약자들의 자손이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조상들과 언약하신 언약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 가운데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씨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일으키시어, 그분을 먼저 여러분에게 보내신 것은 여러분 각 사람을 악한 행실에서 돌아서게 하여 축복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의 씨’ 안에서 축복을 받게 된다고 말하는데, 이 씨는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갈 3:16). 땅의 모든 족속, 곧 모든 종족과 인종과 민족은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을 받게 된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오순절날에 그분의 영을 부어 주심으로써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먼저 유대인들에게 다시 보내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부어 주신 그 영은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하늘들로 높이신 바로 그 그리스도이시다. 사도들이 이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공급했을 때, 사람들에게 그 영께서 공급되셨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26절에 기록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종이신 그리스도는 이미 하늘들로 승천하시어 여전히 그곳에 계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말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실상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하늘들 안으로 영접하셨다. 그러나 여기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승천하신 이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보내셨다고 말한다. 하나님은 어떠한 방식으로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에게 보내셨는가? 바로 그 영을 부어 주심으로써 그분을 보내셨다. 이것은 부어지신 그 영께서 사실상 승천하신 그리스도 자신이심을 함축한다. 부어지신 그 영께서 사람들에게 오셨을 때, 이분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신 승천하신 그리스도이셨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부어지신 그 영과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동일한 분이신 것을 본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그분의 백성의 체험을 위해 승천하신 그리스도와 부어지신 그 영은 하나이시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그리스도와 그 영은 우리의 누림을 위해 하나이시다.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들에게 먼저 보내셔서 그들을 악한 행실에서 돌아서게 하심

이 절들에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을 유대인들에게 부어 주심으로써, 그분의 종을 먼저 유대인들에게 보내셨음을 말하고 있다. 이제 그들은 이분을 영접할 필요가 있다. 그분은 그들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는다. 비록 그분은 하늘들에 계시지만, 경륜적으로 그분은 그들을 축복하시기 위해 부어지신 그 영으로서 그들 가운데 계신다. 그들이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들은 그분의 인격, 곧 그 영을 영접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생명 주시는 영으로서 우리에게 보내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받는 길이다. *(신약의 결론, 영문판, 2981-2984쪽)*